

“치매 단계별 맞춤 지원”...ABL생명 ‘치매케어보험’ 출시

ABL생명은 치매 병력과 관련한 세 가지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치매 전문보험 (무)ABL치매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계약 및 특약 부가로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치매 단계에 따른 진단비와 중등도 이상·중증 치매 간병비, 간병인 사용 지원 치매 입원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급여, 치매에 수반되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와 특정 파킨슨·루게릭병 질환까지 보장한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중등도 이상 치매에 대해 매월 최대 50만 원씩 종신까지 생활자금을 받으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1회당 20만~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간병인이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사용해 치매로 입원한 경우 해당 특약을 부가하면 입원 일수 1일당 3만~5만 원의 입원비도 받는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월납입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40세 남자와 여자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 90세 만기, 20년 납으로 이 상품에 가입 시 주계약 월납입보험료는 각각 6천700원과 5천300원이다.

가입 나이는 30~75세까지며 주계약 가입 한도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다.

ABL생명은 이 상품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치매 발병 전에는 치매 예방을 돕는 건강상담, 명의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건강검진 우대 혜택, 건강 정보 제공, 치매 자가조기 진단, 요양 시설 안내 등 헬스케어치매 조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발병 후에는 치매 단계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도 치매 상태(CDR1) 최종 진단 확정 시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주기적 말벗 및 정서적 안정 체크를 위한 안부 전화, 보호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치매 환자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치매케어보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